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실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부모님들과 이 말씀 편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매 주일 교사들과 나누는 말씀 공부인데 부모님들에게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요. 긴 글이라 힘드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이들과 배우는 말씀이기도 하니 시간 내어 읽어보세요!

6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6-9)

오랜 시간 교육부에서 사역을 하면서 깨닫는 것은 아이들 신앙 교육은 바로 부모님 신앙 교육임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된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자녀양육의 노하우를 배우기 전에 부모님들이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는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주의 교훈과 훈계가 자녀들에게 흘러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교사편지>

지난 주에 이어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고 제자들에게 분부를 맡기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어떻게 기다릴까...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1.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감람원 혹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는지 누가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함께했던 스승을 배반했던 자들이요, 서로 큰 자가 되기 위해 다투던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사건을 경험한 후 이제 그들은 조금씩 달라짐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떠나고 난 후 자식들이 정신을 차리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주신 명령을 붙잡고 예루살렘에 그들이 유하던 다락방에 모입니다. 뭔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듯

누가는 제자들의 이름을 다시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을 사도라 칭했을때처럼...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태와 및 알파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무리 속에는 그 당시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여자들도 동등한 위치에서 소개되어집니다. 또한 예수님의 형제자들도 제자들의 모습으로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는 이처럼 예수님을 중심으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품으며 다시 시작 합니다.

모인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바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어떤 기도회의 모습일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곳에 모인 수는 제자들, 여자들, 예수님 형제들을 포함하여 120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모였던 것입니다. 그들 모두 그렇게 한마음으로 기도에 힘씁니다. 그들은 한마음으로 예수님의 당부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알려줍니다. 기도하면서...

2.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일어났던 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뭔가 대단한 결의가 느껴집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라고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을 이야기하며 시편의 성경을 인용하며 말합니다. 기도하는 중 말씀이 해석되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내세우지 않고 이제는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기도 가운데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말씀이 답이 되어지는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를 해 나가는 중, 요 근래 다시한번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리스트처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맞는 것일까... 베드로는 어떻게 기도했을까 궁금하며 성경을 읽어가는데 베드로의 기도가 나와서 너무 기뻤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 이 공동체에게 다시는 꺼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지만 그것은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한 것임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이 사람의 직분을 대신할 한 사람을 세우려고 합니다.

3. 가룟유다를 대신해서 맷디아가 선출되는 과정

구약의 12 지파가 있었듯이 신약에는 하나님이 12 사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들입니다. 베드로는 이제야 주님이 자신들을 세우신 그 깊은 뜻을 깨달은 듯 합니다. :)

누구를 뽑을까.. 베드로가 지혜롭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3년전 예수님의 첫 공생애를 알리는 세례요한의 세례부터 부활때 까지를 경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두 명이 선출이 됩니다.

그들이 기도합니다.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4. 기도는 무엇인가

제가 배운 기도가 이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의 상황이 해석되어지는 기도,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드리는 기도, 모든것을 아시는 주님만이 답을 갖고 계심을 인정하는 기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여쭙는 기도. 이미 주님이 택하신 그 자를 보여달라는 기도. 우리의 상황을 그저 솔직히 알리는 기도.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닌 기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고 구하는 기도, 결과를 주님이 응답하심으로 믿는 기도.

그렇게 기도가 끝난후 저들은 제비 뽑아 맷디아를 얻고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갑니다. 제비뽑기의 결과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것을 기도제목으로 삼고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못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보여 달라고 알려 달라고 기도했고! 행동을 했고! 그 결과는! 기도했기에 주님이 이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5.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교회

이렇게 초대교회가 그 모양을 갖추며 세워져 가는 시간입니다. 영락교회는 올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교회라는 표어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까... 강사 목사님이 첫째 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들의 마음에 임하는 것인데, 단순히 '믿어 믿어'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입니다. Lord Jesus.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나의 삶에 주인이라면.. 아직 한번도 예수님의 내 삶에 주인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면 아직 회심한 게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내 삶에 주인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 내가 시간을 보낼 때, 돈을 쓸 때, 자녀를 양육할 때, 봉사를 할 때, 미래의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따르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해서 주인의 말을 100 프로 듣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론 주인의 말을 안 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회개하며 다시 돌아오지만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주인, 왕이 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6.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베드로의 인생을 살펴볼 때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엄청난 정답도 이야기했지만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즉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막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자신이 주인 되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도 자신은 떠나지 않겠노라고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잘하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내가 실패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스테이지에 계십니까? 분명 우리는 성령세례를 받아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복음서의 내용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따르기로 결정한 자들에게는 사도행전의 순간이 오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주 성령강림을 공부하며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7. 달라진 공동체

예전에 깨어있지 못해 시험에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육신이 약해 잠들었고 결국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을 순종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나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늘 몸이 먼저 앞서고 말이 먼저 앞섰던 베드로가 기다립니다. 어떻게 기다립니까? 기도하면서.. 그냥 내 리스트 올리며 예수님을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사용하는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에 전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는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에게도 주님이 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고..

바쁜 세상에 살며 개인주의가 심해지고 유튜브에 온통 좋은 설교나 강의가 많아지면서 사람들은 모이기를 꺼려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듣고 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물론 교회에서 하는 모든 모임에 다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모이는 기도의 시간을 함께 하자고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2 월부터 있을 교사기도회에는 모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때 그곳 가운데 우리 주님 우리 교육부의 갈 길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01072024

참, 지난 주 저학년 예배를 인도하면서 앵무새같이 말을 잘하지만 정작 복음이 무엇인지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증인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는 많은 아이들이 대답했고 우리가 할일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라고 모두들 동의했지만 그 복음이 뭔데..라고 물어볼때, 어느 누구도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가르치고 있었다는 사실에 너무 부끄럽고 주님께 죄송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만약 교사분들중에 복음을 이야기할 수 없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에 대한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재 맨 마지막 장에 가셔서 복음을 읽어보시고, 정말 내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아는 자인지를 확인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마음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마다 복음의 내용을 같이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는 같이 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새해 첫 이메일부터 너무 센건 아닌지..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함께 성장하고 아는것과 믿는것에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니 너그럽게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안에서
조이전도사드림